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은 w49ave&Manitoba st.에 위치한 곳으로 근처에 Canada Line으로 연결되는 스카이트레인과 오크리지 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한 규모이며 한가지 다른점은 우리학교와 다르게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은 매우 잘 되어있으며 랑가라 대학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따뜻한 곳입니다.
수업	수업내용은 3주동안 크게 Vancouver, Culture, First nation에 대해 배웁니다. 밴쿠버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통해 지리와 유명 명소 등에 대해 배워 수업이 끝나고 혹은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업방법은 학교 측에서 만든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communication을 통한 회화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ctivity가 있는 날엔 사전조사를 하고 그룹끼리 주어진 과제를 하여 그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분반은 소규모이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선생님이셨던 Tanya는 정말 친절하셨고 완벽하지 않은 영어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분입니다! 매일 어렵지 않은 적은 분량의 숙제가 있었고, 과제 내용은 홈스테이 가족과 인터뷰, Journal 등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1주차엔 Museum of Vancouver와 랑가라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주차엔 Curling과 Granville Island에 갔으며 3주차엔 아쿠아리움과 Snowshoeing을 하였습니다. 주로 Activity가 있는 날엔 그 주제에 맞는 과제를 주셔서 조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를 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준비물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 하는 마음과 유인물입니다. 추가비용은 Activity만 참여하면 따로 필요

	없으며, 끝난 후에 학교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놀러가게 되면 필요하게 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밴쿠버는 겨울철에 우기이기 때문에 파견기간동안 내내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조금 우울해 했습니다. 다행히 일기예보와 다르게 파견된 1주 동안만 비가 오고 2~3째 주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밴쿠버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녀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된 기간이 밴쿠버가 이례적으로 추웠다고 하는데, 한국보다 덜 추웠으며 마지막 날인 4~5 일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안전	밴쿠버는 5시부터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운타운이 아닌 이상 접근처는 일찍부터 깜깜해 지기에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보다 안전하지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있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버스나 스카인트레인을 타게 되면 백팩이나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는 엄마,아빠,아이2명이 있는 집이었으며, 특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으며, 가족들과 매일 자기전까지 TV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홈스테이 엄마께서 더 유용한 영어회화 표현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회화를 정정해 주시면서 저 자신이 느끼기에도 3주동안 영어회화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에 더 재밌었습니다. 규칙과 유의사항은, 세탁기는 주3회까지 돌릴 수 있었으며, 11pm까지 샤워를 해야 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아침엔 토스트와 과일, 시리얼을 먹었으며 점심엔 홈스테이 가족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주로 전날 먹고 남은 것을 싸주셨으며, 홈스테이 엄마께서 건강식을 좋아하셨기에, 향신료와 소금, 설탕 등을 사용하지 않아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주로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많았으며, 식

	단은 매일매일 바뀌었습니다. 저녁은 같이 파견 온 친구들과 외식을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통	49번 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학교에 바로 도착할 수 있었으며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구글 지도만 있으면 쉽게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버스가 아닌 스카인 트레인을 사용할 경우엔 1구역에 사는 경우 2구역으로 갈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평일 6:30pm, 주말에는 모든 구역에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50,000원	
홈스테이 가족 선물	50,000원	Tea, 인형
쇼핑	300,000원	
빅토리아 페리 왕복	30,000원	
입장료	\$44.72+\$34.6+\$19.90+\$13.15=\$112.37 (약 12만원)	그라우스 마운틴, 캐필라노, 플라이오버, 하버센터(전망대)
합계	820,000원	820,000+1,200,000=2,02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감기약 등 각종 비상약을 꼭 챙겨야 합니다. 같이 파견 왔던 친구들도 한번씩은 감기에 다 걸렸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산은 가방에 보관하고 다닐 수 있는 작은걸 준비하여야 하며, 신발은 비가 자주오기 때문에 방수가 잘되고 흰색이 아닌 운동화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 전 홈스테이 가족한테 메일을 보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과 규칙 등을 물어봤으며, 드라이기, 고데기, 샴푸, 린스, 수건 등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준비해 주셨기에 따로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너무나도 소중한고 값지고 찬란했던 3주였기에 기회가 된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 교통, 사람들, 안전 등 그 모든 것들이 좋았기에 더욱 더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내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에 가기 싫다'라는 말을 꺼냈을 정도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홈스테이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 같이 파견 온 친구들과 죽을 때 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으며 특히 같이 온 모든 학생들과 마음이 맞아 큰 트러블 없이 너무 행복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됐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절대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해외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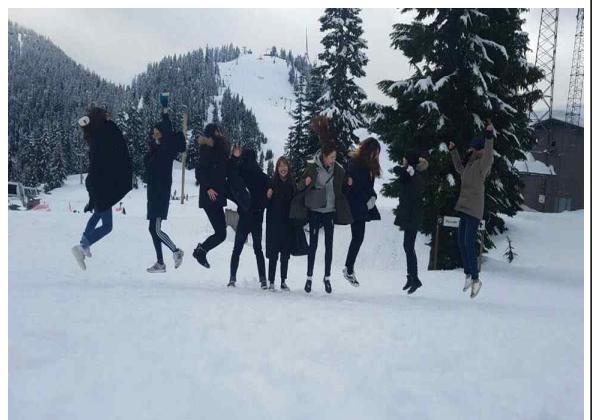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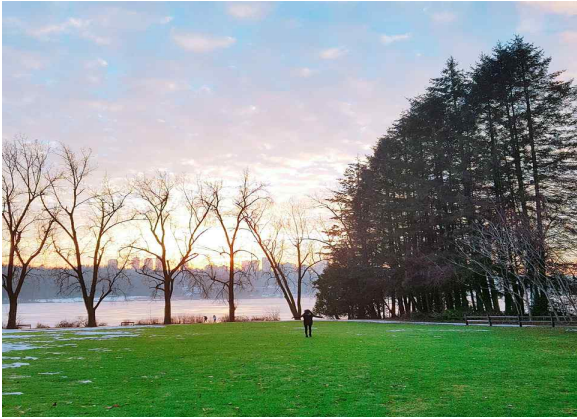


홈스테이 엄마가 해주신 저녁



한국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점심으로
챙겨주신 라면



Activity-Curling	그라운드스 마운틴-단체사진
	
Deer Lake Park	Closing Ceremony